

과제명	함께하면..... 주민편의 쏙! 예산낭비 쏙! (성덕댐 하류공원 농업진흥지역 해제)		
제출부서	낙동강유역본부 청송권지사 (협업부서 : 낙동강사업계획처)	과제 분야	적극행정
팀원	(리더) 김보황 부장 (팀원) 강형순 차장, 김성일 과장, 신혜원 대리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북도 기 조성된 댐 하류공원 농업진흥지역 지적 및 철거·원상복구 요구('19. 11) ■ 관계기관 문제해결 적극 동참유도를 바탕으로 한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신청('22. 4) ■ 감사 결과,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것이 적정('22. 9) 	
기존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주민 소통과 소득 창출 시설 상실 위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시설물 합법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근거 확보

1. 추진배경

◇ 지역주민 요구로 조성된 댐 하류공원(캠핑장, 축구장 등_마을공동체 운영 중)을 경북도는 농업진흥지역(1.9만㎡) 해제 필요 지적 및 철거·원상복구 요구('19년)

- 성덕댐 건설 시 댐 주변지역의 사회·문화수준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민의 요구*가 반영된 하류공원 조성
 - * (K-water)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 등 ⇒ (청송군) 오토캠핑장, 축구장 등
- 공사 준공('15.10) 이후 청송군에 공공시설물 이관('16.11)이 되었고 현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*(천마산영농조합)이 위탁 운영 중
 - * 공원 내 캠핑장 관광사업 등록 및 매점 운영에 따른 소득 창출(연 72백만원)
- 댐 실시계획 변경(10차) 협의('19.11)시 경북도는 하류공원 농업진흥지역 미해제 지적 및 해제 절차 이행 필요 의견으로 회신
 - 농업진흥지역 미해제 상태에서 하류공원 설치는 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사항으로 先 철거 後 진흥지역 해제 요구
 - 그 외에도 하류공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 난항
 - (지역민) 편의시설(캠핑장 등) 철거 반대 및 대규모 민원 제기
 - (지자체) 행정절차 미준수에 따른 책임 및 민원 우려로 소극적 대응
 - (K-water) 성덕댐 사업준공 지연으로 원활한 댐운영 제약 발생

2. 추진내용

◇ 관계기관·지역주민·감사기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(사전컨설팅감사) 제시 및 문제해결 적극 동참 유도로 소기의 목적 달성

추진개요

- 적극적 설득으로 관계기관의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인 “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” 제시 및 추진 합의(22. 4)

[사전 컨설팅감사란?]

✓ 법률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

- 사전 컨설팅감사 원활한 진행을 위한 내·외부 협업 기능 강화
 - (내 부) 감사실(컨설팅감사부) 협업을 통한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대응
 - (외 부) 관계기관(감사원 등) 소통협력 강화 및 지역민 협조체계 구축

추진경위

- (4. 15)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(청송군→경북도)
 - * (감사요지) 국고 손실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성덕댐 하류공원 진흥지역 해제 요청
 - ** (주요내용) 기관간 의견 상이, 농지기능 상실된 공원 진흥지역 해제 방안 필요
- (4. 28) 경북도 검토 결과,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감사원 상신
- (5. 4) 농업진흥지역 관련 감사원(K-water 감사실 동행) 사전 설명
- (6. 2) 감사원 주관 사전컨설팅감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
 - * (회의내용)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수행은 경북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
- (6. 20) 성덕댐 미준공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공익 문제점 제출
- (6. 26)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부 의견 조회(감사원↔농림부)
 - * (조회내용)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기관 성덕댐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여부
- (9月) 감사원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(감사원→경북도→청송군→K-water)
 - * (결과내용) 시설물 철거없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可, 관련기관 미이행 관련 조사

3. 실무상 어려움과 해결 노력

- ◇ 이 문제를 둘러싼 장기간 시간 경과, 관계기관간 책임 공방, 과실 우려에 대한 소극적 대응, 지역민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 난항에 봉착
- ◇ 적극 소통 추진 결과, 관계기관 해결책(사전 컨설팅감사) 논리 수용

실무상 어려움

- 댐 하류공원 철거 논의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주민소득 감소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발 및 협조 거부로 문제해결 진전에 애로
- 허가기관은 최초 농지전용협의('06) 후 13년만에 농업진흥지역 미해제 지적만 할 뿐 행정절차 하자 미인정 및 해결대안 미제시
 - '21년 LH사태(농지 투기) 발생 이후 적극적 해결보다는 철거 후 농지 원상복구라는 원칙만 주장하며 소극적 대응 일관
 - 문제 해결없이 장기간 경과로 관계기관간 과실책임 공방만 커짐
- 뚜렷한 해결책 없이 시간 경과함에 따라 주변지역사업 차질 및 시설물 관리주체 불명확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등 문제 발생

해결 노력

- 의견차 해소를 위해 K-water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 대화의 장 마련
 - (관계기관) 댐 건설로 인한 농지 본연의 기능상실 설명 및 지역 주민피해 방지 위한 철거 없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타당성(총 22회) 설득
 - (지역주민) 문제 해결을 위한 K-water 노력 설명(총 10회) 및 지역 주민들의 관계기관 설득 동참 요청(지역민 약 90명 탄원서 제출)
- 관계기관 담당자 부담감 호소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령·규정 등 철저한 분석 및 다각도 검토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 마련
 - (관계기관) 감사 결과에 따른 해제 진행 시 부담감 감소로 논리 수용
 - (지역주민) 철거 제외한 다른 방안 모색에 적극 협조 노력

4. 주요 성과

- ◇ 감사원 감사결과,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준공 전 진흥지역 해제 적정
- ◇ 이해관계자(지자체, 지역민 등) 모두가 상생·발전하는 일석삼조 사례 구현

- 참여한 이해관계 속 적극 소통의 결과로, 철거 없는 해제 근거 마련
 - 감사 결과, 농림부 의견을 반영하여 성덕댐 하류공원을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댐 준공 전 진흥지역 해제하는 것이 타당
 - 댐 주변지역의 문화·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류공원 역할 지속 수행
- 적극행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하는 WIN-WIN 사례 구현
 - 일석삼조 효과(지자체_문제해결, 지역민_피해예방, K-water_사업준공&국고손실* 예방)
 - * 검토 결과, 하류공원 재설치 비용(시설물 철거 및 공원 재조성) 약 50억원 산정
 - 관계기관 등과 형성된 신뢰관계는 향후 K-water 사업 진행시 도움

5. 향후 계획

- ◇ (K-water) 성덕댐 건설사업 최종 기본·실시계획 변경고시 후 준공인가 추진
- ◇ (경북도) 감사 결과에 따라 하류공원(1.9만㎡)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진행

- 성덕댐 건설사업 최종 기본·실시계획 고시 변경 및 준공인가 추진
 - (기본계획) 환경부 보고(9월) 및 최종 변경(14차)고시 승인(10월 초)
 - (실시계획) 관계기관 분야별 사전 협의(농지전용, 국공유지 등)를 시행하여 10월 중 협의 완료, 11월 초 변경(13차)고시 추진
 - (준공인가) 성덕댐 준공인가 신청(11월 말) 및 준공인가 得(12월 중)
- 경북도 주관으로 하류공원 부지(1.9만㎡)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
 - * 하류공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성덕댐 건설사업 준공과 별도로 진행

【향후 진행 절차(예상)】

- ▶ 진흥지역 해제 농정심의회 심의 → 농림부 해제승인 요청 → 해제 고시